



## 새로운 조경수 83

### 모란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1. 종류와 생육특성

모란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의 모란속(*Paeonia*)에 속하며 중국서부 산악지역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는 약 1,500년전에 약용식물로 도입되어 재배되어 왔다. 그 후 개발된 화목용 신품종이 도입되면서 정원에 화목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목용 신품종 개발은 중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수백종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품종이면서 나라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던지 많은 품종이 소멸하고 또 유사한 신품종이 개발되는 등으로 품종식별이 대단히 어렵다.

모란은 내한력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에 식재가 가능하고 양수이기 때문에 벌이 잘 드는 양지쪽에 식재하여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생육적지는 배수가 잘 되고 부식질이 많은 비옥적윤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화목으로 식재되고 있는 몇 가지 품종을 소개한다.

#### 2. 조경수로서 활용가치

모란은 중국 서부 산악지대



▲ 적모란(적색원종)

〈표 1〉 모란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ボタン(木丹)	Tree Peony
황모란	<i>Paeonia lutea</i> DELAVAY.	キンボタン(金木丹)	
긴데이	<i>Paeonia lemoinei</i> REHD. 'L.Esperance'	キンテイ(金帝)	
니쇼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Nissho'	ニッショウ(日照)	
하나다이진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Hanadaijin'	ハナダイジン(花大臣)	
하쓰가라스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Hatsugarasu'	ハツガラス(初鳥)	
가마다후지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Kamatafujii'	カマタフジ(鎌田藤)	
하꾸오지시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Hakuojishi'	ハクオウジン(白王獅子)	
푸소쓰가사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Fusotsukasa'	フソツカサ(扶桑司)	
고다이슈	<i>Paeonia Suffruticosa</i> ANDER. 'Godaisyu'	ゴダイシユウ(五大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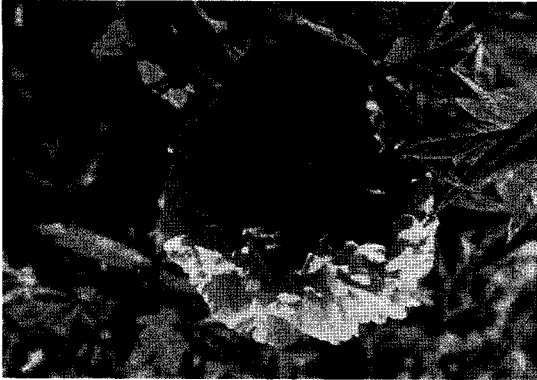
〈표 2〉 품종별 특성

수 종 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 지역	생육 입지
모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엽활엽수 관목으로 수고 3m까지 자람.</li> <li>지면에 가까운 부위에서 가지가 드물게 착생함.</li> <li>잎은 크며 2회 우상복엽이고, 소엽은 2~3개로 갈라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은 자홍색으로 4~5월에 피며</li> <li>꽃잎은 5~10개며 꽃의 지름은 20cm정도임</li> <li>한 개의 꽃은 3~6일간 개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서부 산악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이 잘 드는 양지로 부식질이 풍부한 비옥적운한 사질양토</li> </ul>
황모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83년 중국 운남성에서 PERE DELAVAY 신부가 발견</li> <li>키가 1.5m정도 자라는 관목으로 털이 없음.</li> <li>잎은 2회 우상복엽으로 잎자루가 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은 황색으로 지름이 10cm정도</li> <li>꽃잎은 도난형으로 길이가 3~4.5cm정도</li> <li>숫술은 황색으로 수가 많음.</li> <li>심피(心皮)는 털이 없고 둥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윈남성</li> </ul>	<p>”</p>
긴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고 1m정도 자라고 지하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며 지상부에서는 거의 가지가 착생하지 않음(주립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황색의 중형 겹꽃이 피며 모란(원종)보다 10~20일 정도 늦게 피며.</li> <li>꽃잎의 기부가 짙은 분홍색을 띠며.</li> <li>화경(花梗)은 짧고 꽃의 향기가 짙음.</li> <li>다화성(多花性)이라 꽃이 많이 피며, 화수(花首)가 아래로 처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0년경에 프랑스에서 개발됨.</li> </ul>	<p>”</p>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니 소	• 수세(樹勢)는 보통이며 잎이 좁은 편임.	• 꽃은 진홍색 겹꽃이 펴 • 꽃잎이 많은 편임.	• 원예품종	• 별이 잘 드는 양지로 부식질이 풍부한 비옥적인 사질양토
하나다이진	• 주립(株立)성이 강하고 키가 낮으며 잎자루가 짧음 • 잎은 담녹색이고 폭이 넓음.	• 꽃은 분홍색 겹꽃이 펴 • 겹꽃이지만 꽃잎이 많지 않음.	”	”
하쓰가라수	• 수세가 보통이고 잎이 담녹색이며 폭이 좁은 편임	• 꽃은 짙은 자홍색으로 꽃잎에 광택이 나고 꽃이 점점 피어나면서 검은색이 짙어져 흑모란이라고 불리고 있음. • 꽃잎은 좁은 편이며 뒤틀려서 복잡하게 형클어져 펴.	”	”
가마다후지	• 키가 낮은 편이며 지하부에서 여러 개의 주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함. • 잎은 넓은 편이고 잎자루는 짧은 편임. • 잎과 잎자루에 붉은 빛이 돛.	• 꽃은 분홍색이고 꽃잎에 주름이 지며 꽃잎의 끝부분이 불규칙함. • 꽃은 대형의 겹꽃이며 다화성임.	”	”
하꾸오지시	• 잎은 넓고 농록색이며 잎자루가 긴 편임. • 수세가 강하여 키가 큰 편임	• 순백색의 대형겹꽃이지만 꽃잎수가 많지 않음. • 조생종으로 4월상순 부터 꽃이 피기 시작함.	”	”
푸소쓰가사	• 수세가 강하지 않아 키가 크지 못함. • 잎은 담록색이며 넓은 편임.	• 순백색의 대형겹꽃으로 꽃잎수가 '하꾸오지시' 보다는 많은 편임. • 개화 시기는 만생종으로 5월에 펴.	”	”
고다이슈	• 잎이 좁고 길며, 잎과 잎자루에 붉은 빛이 돛.	• 순백의 대형 겹꽃으로 꽃잎의 폭이 넓은 편임.	”	”

가 원산지인 원종은 적모란(*P. suffruticosa* ANDER)과 황모란(*P. lutea* DELAVAY)의 두 종밖에 없으며, 현재 조경, 분재, 절화용 등으로 보급되고 있는 원예품종들은 위의 두 종을 모체로 하여 개발된 신품종들이다. 꽃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여 예부터 5월의 꽃의 여왕이라 일컬을

정도로 일컬을 정도로 각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 도자기나 우리나라 도자기 문양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왔다. 모란은 관목성으로 키가 작고 강한 양수이므로 별이 잘 드는 건물 앞 화단에 식재하면 건물을 가리지도 않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좁은 공



▲ 황모란(황색원종)



▲ 니쇼(日照)



▲ 하나다이진(花大臣)



▲ 하쯔가리수(初鳥)



▲ 가마다후지(鎌田藤)



▲ 하꾸오지시(白王獅子)

간의 화단에는 단목식재를 하고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넓은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의 모란을 집단으로 식재하여 모란꽃의 장관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3. 번식 및 양묘방법

종자파종, 접목, 분주에 의하며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은 신품종의 창출 또는 접목용 대



▲ 푸소쓰가사(扶桑司)



▲ 고다이슈(五大洲)



▲ 신텐지(新天地)

목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실생묘양성용 종자는 겹꽃에서는 결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홑꽃과 반겹꽃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열매는 7~8월에 익으며 8월상순경에 열매를 채취하여 탈각한 후에 바로 직파(直播)를 하든가, 습한 모래와 섞어서 30~40일간 저온저장을 하여 두었다가 9월하순에 파종하여 3년동안 그대로 거치(据置)하여 두었다가 3년째 되는 가을(10~11월 상순)에 30×35cm 간격으로 이식한다.

접목은 모란실생묘 6년생과 작약 2년생 실생묘를 대목으로 활용하며 작약실생묘에 접목하면 활착률은 높지만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로 분식용(盆植用)으로 활용되고, 모란대목에 접목한 것은 생장이 왕성하여 주로 정원, 화단 등의 조

성에 활용되고 있다. 접목은 9월 중·하순경에 절접(切接)으로 실시하고 접목 후 접수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습한 모래로 덮어주고 겨울에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에 10~15cm정도 두께로 낙엽을 덮어준다. 이듬해 봄에 덮어준 낙엽과 모래를 제거하여 주어야하고 가을에 접목부위에 감아준 비닐 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 4. 모란의 관리요령

- 모란은 3월부터 동아(冬芽)가 자라기 시작하여 4~5월이면 다 자라고 새로 자란 가지 끝에 지름 10cm이상 크기의 꽃이 달리게 되어 꽃이 처지거나 부러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지주를 세워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 모란은 겨울동안에 가지의 끝 부분이 고사(枯死)하게 되고 봄에 이 고사한 부분을 잘라내게 되는데 이 때 고사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생존부분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사부분 바로 아래 생존부에 착생하고 있는 동안(冬芽)가 자라서 개화지(開花枝)가 되므로 이 생존부가 잘려나가면 꽃이 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